

# 중국 조선족 중·고등학생들의 조선어 작문에 나타난 중국어 침투 양상 및 원인분석 — 중국 길림성과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문영희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제1저자)

조일영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교신저자)

\* 이 논문은 이중언어학회 제34차 전국학술대회(2016.11.05.)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I. 머리말

II. 중국 조선족 중·고등학생들의 조선어 작문에 나타난 중국어 침투 양상 및 원인

III. 중국어 침투의 언어환경적 요인

IV. 맺음말

## I. 머리말

중국은 56개 민족에 130여 개의 언어를 가진 다민족, 다문화 나라이지만 한족이 91.46%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어(漢語), 즉 중국어가 공용어로 쓰인다. 따라서 중국의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자연스럽게 이중언어 지역으로 변하였다. 중국의 민족 교육체계를 보면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민족어를 배우는 동시에 전국 공용어인 중국어를 배워야 하며 가능한 한 외국어도 배워야 한다. 따라서 이중언어 교육을 받고 있는 조선족들이 구사하는 조선어에는 중국어의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으며 그런 현상은 이미 조선족 중·고등학교 학생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야, 지금 팬스 보자(애, 지금 텔레비전 보자!)”, “우리 팬티 타자!(우리 엘리베이터 타자!)” 등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족들이 조선어와 중국어의 의미를 혼용하여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sup>1)</sup> ‘전화를 걸다/하다’를 중국어로 ‘打电话’라고 하며 중국어 ‘打’는 ‘치다/때리다’의 의미도

---

1)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언어를 ‘한국어’로, 중국 조선족의 언어를 ‘조선어’로 한다.

있기 때문에 중국어 ‘打’를 ‘치다/때리다’의 의미로 ‘전화를 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서로 다른 두 언어가 장기간 서로 접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언어 간의 간섭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두 언어 간의 간섭은 모방이나 차용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상언어내부에 점차 고정화되면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 침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침투 현상은 어휘, 의미뿐만 아니라 심지어 문법 표현과 문장 구조, 언어의 이데올로기까지 침투하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점점 심화되면 장차의 중국의 조선어에는 남북한의 한국어와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언어요소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이런 현상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족이 밀집해 있는 집거지역의 학생보다는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는 산거지역의 학생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침투 현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검토는 중국어가 조선어에 침투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중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조선어의 이질화에 대한 연구는 조선어 어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그중에서 강보유(1990), 김기중(1990), 강희숙(2003)에서는 중국 조선어가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의미변화를 가지게 되는 조건과 방법을 제시하였고 김덕모(1990), 최윤갑(1991)은 중국 조선어가 중국어의 어휘를 차용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김병운(2000)은 해방 후 중국 조선어가 중국어의 어휘를 대량으로 수용하여 어휘 변화를 이루었다고 지적하고 그중 우리말 사전에 대응어와 동의어가 있는 것과 대응어가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다.<sup>2)</sup> 어휘뿐만 아니라 음운, 음절 구성, 단어구성법, 문장 구성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 조선어에 미친 중국어의 영향을 밝힌 논문은 김동소 외(1994a, 1994b, 1994c), 최란화(2010) 등이 있다.

총체적으로 보면 중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조선어 이질화에 대한 연구는 집거지역(集居地域)<sup>3)</sup> -연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보편적이고 집거지역

2) 이 중 대응어가 없는 경우는 조선어를 사용하는 조선족의 언중에 녹아들어 남북한언어와 다른 어휘들로 정착하게 되었거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집거지역(集居地域): 중국에서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에 대한 호칭.

외의 산거지역(散居地域)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주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 집거지역과 산거지역의 조선족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조선어 작문을 자료로 삼아 중국어 침투 현상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작문은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쓴 글이므로 그 작문을 분석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의 조선어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조선족들은 과거와 달리 일정한 지역에서 교육받고 나서 계속 동일 지역에 머물면서 생활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로 중국과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생활하는 일이 많다. 자연히 학교교육 후에 지역에 남아서 민족적인 공동체로서 생활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언어 사용 실태를 살펴기보다는 학교교육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용이하고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중국 연변 조선족 집거지역에 있는 조선족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조선어 작문 110편과 연변 외의 길림성, 흑룡강성의 조선족 산거지역 조선족학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240편, 총 350편의 조선어 작문에 나타나는 중국어 침투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대상은 중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에 한정하여 언중들이 오류로 인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 오류들을 음운론적 측면, 형태론적 측면, 통사론적 측면 그리고 의미론적 측면에 따라 나누어 유형별로 검토하였다.<sup>4)</sup>

---

산거지역(散居地域): 중국에서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지역에 대한 호칭.

- 4) 중국 조선어와 한국어의 맞춤법의 원칙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 조선어 문장은 중국 조선어의 어문 규범에 따라 제시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의상 다음의 예와 같이 부호를 사용하였다.

☞ : 학생들이 쓴 글

→ : 수정 후의 글

\* : 비문

밑줄(\_) : 침투 현상

## II. 중국 조선족 중·고등학생들의 조선어 작문에 나타난 중국어 침투 양상 및 원인

이 연구에서 검토된 대상 작품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집거, 산거지역 중·고등학생 작문 분석 기본 정보

	집단	작문 편수	문장 개수	단어 개수	편당 문장 개수	편당 단어 개수
집거지역	중3	33	836	7523	약 25	약 230
	고3	77	3036	18959	약 26	약 246
산거지역	중3	63	1443	14400	약 23	약 229
	고3	177	4569	40284	약 26	약 228
누계		350	9884	81166		
평균					약 25	약 234

필자가 수집한 학생들의 작문은 모두 조선어문 모의시험 때, 학생들이 쓴 작문이다. 시험에 쓴 작문은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제 언어 실력을 반영할 수 있다. 수집한 자료는 모두 선생님이 평가한 작문이고 그 중 중3 학생 48점 이상(만점 60점),<sup>5)</sup> 고3 학생 45점 이상(만점 60점)<sup>6)</sup>인 학

- 5) 중국 조선족 중학교 졸업반 조선어문 작문 채점기준표(이 채점기준은 중국길림성교육고시원 2016년중등학교졸업반학업능력시험 조선어문출제팀에서 제정한 것임. 표에서 표기법은 조선어문 규범에 따라 옮겨 적었음)

<b>1등급(57~60점) 기준점수 58점</b>	내용이 충실하고 주제가 선명하며 언어구사가 아주 잘된것. (감정이 진지하거나 착상이 새롭거나 언어구사가 뛰어난것. 이 세가지중에서 한가지라도 특출하면 1등급에 넣는다.)
<b>2등급(54~56점) 기준점수 55점</b>	내용이 충실하고 주제가 명확하며 언어구사가 비교적 좋은것.
<b>3등급(48~53점) 기준점수 50점</b>	내용이 비교적 충실하고 주제가 명확하나 언어구사가 보통인것.
<b>4등급(40~47점) 기준점수 45점</b>	내용이 비교적 충실하고 주제가 비교적 명확하나 앞뒤가 잘 맞물리지 않으며 일부 언어혼집이 있는것.
<b>5등급(39점 이하) 기준점수 35점</b>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주제가 명확하지 못하며 언어혼집이 많고 논리적병구가 많은 것.

생들의 작문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다. 중3, 고3의 학생들이 조선어문 모의 시험 때 쓴 작문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수집한 작문 수가 각 집단마다 차이가 있어서 중국어 침투 현상의 양적인 분석은 집단 내부에서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수집한 학생작문의 한 편당 문장 수가 거의 비슷하고 한 편당 단어 수가 집거지역 고3의 단어 양이 약간 많은 외에 기타 세 집단은 편당 단어의 양이 비슷하다.

<표 2> 한 편의 작문에 나타나는 중국어 침투 현상 수

	집거		산거		누계
	중3	고3	중3	고3	
작문 편수	33	77	63	177	350
중국어 침투 현상 수	9	47	68	270	394
침투 현상 수/편	0.27	0.61	1.08	1.53	1.13

총체적으로 볼 때 중국 조선족 중·고등학생들의 작문에 나타나는 중국어 침투 현상은 한 편당 약 1~2개 정도로 나타난다. 집거지역의 중3 학생의 작문은 3편당 1개 정도의 중국어 침투 현상이 보이고 고3 학생의 작문은 2편당 1개의 중국어 침투 현상을 보인다. 반면에, 산거지역의 중3 학생의 작문에

- 6) 중국 조선족 고등학교 졸업반 조선어문 작문 채점기준표(이 채점기준은 중국길림성교육고시원 2016년고등학교대학수학능력시험 조선어문출제팀에서 제정한 것임. 표에서 표기법은 조선어문 규범에 따라 옮겨 적었음)

<b>1등급(57~60점) 기준점수 58점</b>	내용을 잘 포착했고 주제가 선명하며 언어구사가 아주 좋은것. (감정이 진지하거나 착상이 새롭거나 언어구사가 뛰어난것 등 세가지중에 한가지라도 특출하면 1류작문에 넣는다.)
<b>2등급(51~56점) 기준점수 53점</b>	내용을 잘 포착했고 주제가 명확하며 언어구사가 비교적 좋은것.
<b>3등급(45~50점) 기준점수 47점</b>	내용을 제대로 포착했고 주제가 명확하나 언어구사가 보통인것.
<b>4등급(38~44점) 기준점수41점</b>	내용을 기본상 포착했고 주제가 비교적 명확하나 앞뒤가 잘 맞물리지 않으며 일부 언어혼집이 있는것.
<b>5등급(37점이하) 기준점수 30점</b>	내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고 주제가 명확하지 못하며 언어가 순통하지 못하고 론리적병구가 많은것.

나타난 중국어 침투 현상은 편당 약 1개 정도이고 고3 학생은 편당 약 1~2개 정도의 비율이 보인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중국 조선족 중·고등학생의 작문에 나타난 중국어 침투 현상을 음운론적 측면, 형태론적 측면, 통사론적 측면과 의미론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3〉 각 집단 중국어 침투 현상 비율

	집거지역		산거지역	
	중3	고3	중3	고3
음운론적 측면	6(66.7%)	39(83.0%)	38(55.9%)	146(54.1%)
형태론적 측면	0(0.0%)	4(8.5%)	11(16.2%)	29(10.7%)
통사론적 측면	2(22.2%)	4(8.5%)	11(16.2%)	68(25.2%)
의미론적 측면	1(11.1%)	0(0.0%)	8(11.8%)	27(10.0%)
누계	9(100%)	47(100%)	68(100%)	270(100%)

〈표 3〉은 각 집단의 중국어 침투 유형별 비율이다. 이 네 집단에서는 공통적으로 음운론적인 면에서의 중국어 침투 현상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의미론적인 면에서의 침투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집거지역의 학생들의 작문에서는 음운론적인 면에서의 중국어 침투 현상이 기타 세 가지 측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3보다 고3이 더 그러하다. 산거지역의 학생들은 음운론적인 면에서의 중국어 침투 현상이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태론적인 면, 통사론적인 면, 의미론적인 면에서도 집거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산거지역의 언어 환경에서 집거지역보다 중국어를 더 많이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의 중국어 침투 현상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표에 보인 각각의 문법적 측면에 따라 중국어 침투 현상을 살펴 보겠다.



## 1. 음운론적 측면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중국어를 차용하여 쓰는 현상은 문어(文語)와 구어(口語)에 모두 나타나고 있지만 문어보다 구어에서 차용이 더 많다. 이는 문어에서 차용의 대부분은 음역(조선어 한자음으로 발음)하는 방식으로 들어오지만 구어에서도 절반 이상의 어휘들이 모두 음차(중국어 발음 그대로 쓰임)하는 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조선족들은 한족과 직접적인 구어접촉으로부터 배운 중국어 어휘들을 조선어음에 그대로 옮겨와 사용하거나, 조선어로 직접 표현할 수 없는 어휘를 음차하여 말하고 있다(최윤갑, 1991: 15 참조). 이와 달리 문어에서는 음역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날 대부분의 중국어 어휘가 음역하는 식으로 우리 말 속에 많이 들어왔으므로 조선어 한자음에 의한 음역은 조선족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음역한 한자 어휘들은 조선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실생활 속에 많이 적용하게 되었다.

〈표 4〉 음운론적 현상 비율

	집 거		산 거	
	중3	고3	중3	고3
작문 편수	33	77	63	177
음운론적 현상	6	39	38	146
중국어 발음을 음차한 것			2(5.3%)	7(4.8%)
조선어 한자음으로 음역한 것	6(100%)	39(100%)	36(94.7%)	139(95.2%)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음운론적인 면에서의 중국어 침투 현상은 집 거지역 110편의 작문에 중국어 발음을 음차하는 현상이 하나도 없었고 조선어 한자음으로 음역하는 현상이 음운론적인 면에서만 나타났다. 산거지역 240편 작문에서는 중국어 발음을 음차한 현상은 물론이고 조선어 한자음을 음역한 현상도 보이는데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집거지역이든 산

거지역이든 음역 현상은 비율이 높다. 집거지역의 학생작문에서 중국어 발음을 음차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연변 지역의 조선어문 선생님이 조선어 작문 쓰기를 가르칠 때 작문에 구어에서 많이 쓰던 중국어식 단어(예를 들면 ‘냉장고’를 ‘뽕상(冰箱)’으로, ‘한턱내다’를 ‘칭커(请客)’로 쓴다.)를 쓰면 안 된다고 교육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다음은 ‘중국어 발음을 음차한 것’과 ‘조선어 한자음으로 음역한 것’을 살펴보겠다.

1) 중국어 발음을 음차한 것

최윤갑(1991: 14)에서는 중국 조선어에 들어온 중국어 차용어가 두 가지 방식으로 차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중국 조선어의 한자음에 의하여 음역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 중국어음에 의하여 음역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 학교의 중·고등학생의 작문을 분석하였으므로 구어에 많이 쓰이는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음차하는 단어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 집거지역의 학생들의 작문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산거지역의 학생들의 작문에 <표 5>와 같이 4개 어휘가 나타났다.

<표 5> 중국어 발음을 음차한 단어

어휘	문장	중국어	의미
난류	내 마음속에 한갈래 <u>난류</u> 가 나를 따뜻해 주셨습니다.	暖流	난류, 훈훈한 느낌, 따뜻함
초로하다	...나 때문에 <u>초로</u> 하신 아빠한테 꾸지람한다니...	操劳	열심히 돌보다, 노고하다, 애써 일하다, 수고하다, (일을) 열심히 처리하다
대위	...‘왕’의 <u>대위</u> 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待遇	(급료·보수·권리·지위 등의) 대우, 대접
퇴변	...역경을 이겨내서 아름다운 <u>퇴변</u> 을 완성해야 합니다.	蜕变	(사람·사물 등이 나쁜 방향으로) 탈변하다. 탈바꿈하다. 변질하다.

〈표 5〉의 ‘난류’, ‘초로하다’, ‘대위’, ‘퇴변’과 같은 단어는 중국어 발음 그대로 음차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그에 해당하는 현상이나 사물의 조선어 단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중국어 단어를 차용하여 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중국어 단어 ‘暖流(nuǎnliú)’의 발음이 ‘난류[nwanrju]’와 비슷해서 ‘난류’를 ‘난류’로 쓴 것이다. 이와 비슷한 추리로 두 번째 중국어 단어 ‘操劳(cāoláo)’의 발음이 ‘초로[tɕʰoro]’와 비슷해서 ‘초로’로 쓰인 것이고 세 번째 중국어 단어 ‘待遇(dàiyù)’는 ‘대위[dɛwi]’의 발음과 비슷해서 ‘대위’로 쓰인 것이다. 네 번째 중국어 단어 ‘蜕变(tuìbiàn)’의 ‘蜕(tuì)’는 ‘퇴[tʰɔ]’와 비슷하고 ‘变(biàn)’은 한자어 ‘變(변)’으로 쓰인 것이다.

## 2) 조선어 한자음으로 음역한 것

여기서는 중국어의 단어를 중국 조선어의 한자음으로 음역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학생 작문에 나타난 〈표 6〉과 같은 한자음으로 음역하는 단어들은 『조선말사전』(1995)에 없는 단어들이지만 중국 조선족들이 문어나 구어에서 많이 쓰고 있다.

〈표 6〉 조선어 한자음으로 음역한 단어

어휘	중국어	의미
반급(班級)	班级	반, 학급
시광(時光)	时光	시간
경색(競賽)	竞赛	경기, 경쟁
통고(痛苦)	痛苦	고통
탐념(貪念)	贪念	욕심, 탐욕
급진실(急診室)	急诊室	응급실
필업(畢業)	毕业	졸업
흡독(吸毒)	吸毒	마약을 복용하다
양육지은(養育之恩)	养育之恩	길러준 은혜
위렬상품(偽劣商品)	伪劣商品	위조 상품, 위조 저질품

위와 같은 용례들은 모두 중국어 단어를 조선어 한자음으로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그중 ‘반급, 경색, 필업’과 같은 단어는 오래 전부터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왔고 집거지역이든 산거지역이든 평소에 많이 쓰고 있는 단어들이다. 그 외의 단어들은 산거지역 학생들의 작문에 나타난 것들이다. 여기서 특별히 설명해야 할 어휘는 ‘경색’, ‘필업’, ‘양육지은’이다.

정경언(1986: 54)은 ‘경색’은 기존어휘 ‘경쟁’ 대신에 비규범적 단어로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競爭’과 ‘競賽’은 모두 동사 ‘경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競賽’은 중국어에서 ‘시합, 경기’라는 명사의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합/경기’를 의미할 때 ‘××경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말사전』(1995)에서의 ‘필업(畢業)’의 의미는 “하던 학업이나 사업을 끝마치는 것”이고 ‘졸업(卒業)’의 의미는 “학생이 학교의 규정에 따라 과점안의 과목을 다 원만히 마치고 그 학교의 학생생활을 끝내고 나오는것”이다. 학생들이 쓴 작문을 보면 “학교를 필업하다”라는 문장이 많이 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다”라는 문장은 매우 드물다. 그리고 평상시에 조선족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필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졸업’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는데 중국어 어휘 ‘毕业(畢業)’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육지은(養育之恩)’의 중국어 ‘养育之恩’은 ‘길러준 은혜’의 의미로서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와 같은 문장에 많이 쓰이지만 학생들이 중국어 ‘养育之恩’을 한 단어로 보아서 문장에서 그대로 ‘양육지은’이라고 쓴 것이라고 본다.

## 2. 형태론적 측면

날말의 변화에는 어휘적인 의미 변화도 있지만 품사가 달라지는 변화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면 문장 구조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집거지역과 산거지역의 조선족 학생들의 작문

에 나타난 형태론적인 면에서의 중국어 침투 현상은 다음과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형태론적 현상 비율

	집 거		산 거	
	중3	고3	중3	고3
작문 편수	33	77	63	177
형태론적 현상	0	4	11	29
단어의 합성		3(75.0%)	7(63.6%)	22(75.9%)
소속품사가 변화된 것		1(25.0%)	4(36.4%)	7(24.1%)

형태론적인 중국어 침투 현상은 집거지역 중3 학생의 작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거 지역 고3, 산거 지역 중3과 고3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단어의 구성’ 현상에 중국어식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집거지역이든 산거지역이든 학년이 올라갈수록 ‘단어의 합성’에서 중국어식 단어를 쓰는 현상이 더 심각해 보인다.

다음은 중국 조선족 학생들의 작문에 나타난 중국어식 단어의 합성 그리고 소속품사가 변화된 중국어 침투 현상을 살펴보겠다.

#### 1) 단어의 합성

학생들이 쓴 작문을 보면 중국어 한자음으로 음역한 어휘와 중국 조선어 접미사 ‘-하다’가 결합된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어의 기존 어휘를 기초로 하여 중국어의 단어 구조를 본떠서 만든 새로운 어휘들도 많이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음역과 의역의 결합 형식인데 사실상 중국어 의미와 중국 조선어 의미가 합쳐진 합성어로 볼 수 있다.

〈표 8〉 중국어 의미로 인한 조선어 합성어

어휘	결합 방식	중국어	의미
선대하다 <sup>7)</sup> (善待-)	善待+하다	善待	잘 대접하다. 우대하다.
차하다(差-)	差+하다	差	표준에 못 미치다. 좋지 않다.
간어머니(干媽)	干+어머니	干妈	의모(義母) 양어머니(養-)
밥점(飯店)	밥+店	飯店	식당
자랑감	자랑+感	自豪感	자부심
담배머리	담배+머리	烟头	담배꽂초
반공실(辦公室)	반(음차)+公室	办公室	판공실, 사무실
반주임(班主任)	반(음차/음독)+主任	班主任	담임 선생님

이상의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어휘들은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비규범적인 어휘이지만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 2) 소속품사가 변화된 것

중국 조선어 단어 속에 없는 품사성이 중국어의 동형 단어 속에 있는 품사성의 영향으로 품사의 변화를 이루었다.

### 가) 명사 → 동사

#### (1) 영향(影響)

☞ 그 행동자체 다른 사람을 영향하다. [영향(명사) → \*영향하다(동사)]  
→ 그 행동자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 (2) 벌금(罰金)

☞ 쓰레기를 마구 던지면 벌금해야 된다. [벌금(명사) → \*벌금하다(동사)]

7) 현대 한국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다.

→쓰레기를 마구 버리면 벌금을 내야 된다.

(1)의 ‘\*영향하다’는 중국어의 ‘影响’에서 생겨난 활용이다. 중국어 ‘影响’은 명사로서의 쓰임도 있고 동사로서의 쓰임(의미는 ‘영향을 주다/끼치다’)도 있으나 조선어의 ‘영향’은 동사로 쓰이지 않는다. ‘\*영향하다’는 중국어의 동사성에서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의 ‘\*벌금하다’ 역시 중국어의 동사성에서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명사 → 부사

(3) 전문(專門)

☞ 저희는 전문 3학년학생들을 위해 복무하는 업체입니다.

[전문(명사) → 오로지(부사)]

→ 저희는 오로지 3학년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업체입니다.

(4) 구경(究竟)

☞ 아, 구경 무엇 때문에 그를 미소짓게 하는 것일가?

[구경(명사) → 도대체(부사)]

→ 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를 미소짓게 하는 것일가?

(3)의 ‘전문’은 중국어의 ‘专门’에서 생겨난 활용이다. 중국어 ‘专门’은 명사, 형용사로서의 쓰임<sup>8)</sup>도 있고 부사로서의 쓰임(의미는 ‘오로지’)도 있으나 조선어에서 ‘전문’은 부사로 쓰이지 않는다. ‘오로지’란 의미로 활용한 것은 중국어 ‘专门’의 부사성이 전이된 결과이다. (4)의 ‘구경’도 같은 원인으로 전이된 결과로 볼 수 있다.

8) ‘전문(專門)’의 중국어 의미: ① 독립적으로 자체의 체계를 이루다. ② 어느 한 갈래의 지식. ③ 오직 단 하나의 일만 종사한다 또는 하나의 학문을 연구한다. ④ 특기.

### 3. 통사론적 측면

맹주역(1990: 26)에 의하면 번역은 의미전달을 위한 사용의 단위(주로 문장 이상의 단위)가 다른 언어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지 사용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단위(형태소 및 단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다. 다른 언어의 어순에 따라 형태소나 단어를 옮기어 배열하였다고 해서 완전히 번역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시간에 쫓기는 등의 사유로 부주의한 경우, 언어의 부분적 형식을 전환시켜 배열하는 경향이 있다. 부분적 형식의 전환은 정확하다 하여도 전체 문장에서 이들 성분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때에 따라 문형(문장 구조)상 자기 언어 본연의 모습에 없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중국 조선족 중·고등학생들이 쓴 작문에서 다음과 같이 4가지 통사론적인 현상이 보인다.

〈표 9〉 통사론적 현상 비율

		집 거		산 거	
		중3	고3	중3	고3
작문 편수		33	77	63	177
통사론적 현상		2	4	11	68
중국어 어순으로 된 것	관형사+의존명사+명사	1 (50.0%)			1 (1.5%)
	수사+의존명사+명사				2 (2.9%)
관형적인 구성이 중국어식으로 된 것	‘-한’			5 (45.5%)	14 (20.6%)
	‘-히’			2 (18.1%)	7 (10.4%)
	접미사 ‘-적’의 첨가 현상				2 (2.9%)
	접미사 ‘-적’의 생략 현상				2 (2.9%)
중국어식 구 구성	중국어식 문형				3 (4.4%)
	중국어식 연어 표현		4 (100.0%)		26 (38.2%)
중국어 명언, 관용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		1 (50.0%)		4 (36.4%)	11 (16.2%)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집단의 작문에 나타난 통사론적인 중국어



침투 현상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거 지역 중3은 ‘중국어 어순으로 된 것’과 ‘중국어 명언, 관용어 그대로 번역한 것’에만 중국어 침투 현상이 보이고 고3은 ‘중국어식 연어 표현’에만 중국어 침투 현상이 보인다. 산거 지역 중3은 ‘관형적인 구성이 중국어식으로 된 것’과 ‘중국어 명언, 관용어 그대로 번역한 것’에만 중국어 침투 현상이 보인다. 산거 지역 고3은 ‘중국어 어순으로 된 것’, ‘관형적인 구성이 중국어식으로 된 것’, ‘중국어식 구 구성’과 ‘중국어 명언, 관용어 그대로 번역한 것’에 모두 중국어 침투 현상이 보이고 그중 ‘관형적인 구성이 중국어식으로 된 것’과 ‘중국어식 구 구성’이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중국 조선족에게 있어서 통사적인 중국어 침투는 의사소통에 별 지장이 없지만 일반적인 쓰임이 아닌 것으로 본다.

#### 1) 중국어 어순으로 된 것

김선희(1998: 30)에서는 어순의 측면에서 우리말(조선어, 한국어)과 다른 양상은 주로 ① 수사(수량사)+명사 ② 부정문 등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어식 어순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 중에서는 ‘관형사/수사+의존명사+명사’와 같은 현상도 나타났다. 단어 연쇄인 구의 구성에서 단위명사 앞에 끼어드는 것은 통사론적인 문제로 본다.

##### 가) 관형사+의존명사+명사

- (5) ☞ 시간은 매개인에 다 존재되고 매개인에게는 모두 24시간이 있고...

[每个人 → 매 사람마다, 사람마다]

##### 나) 수사+의존명사+명사

- (6) ☞ 물을 쓰지 않을 때 수돗꼭질을 닫으면 그 절약한 물은 몇개 사람들이 마실수 있겠습니까?

[几个人 → 몇 사람]

중국어에서 양사(量詞) ‘수(개)’는 셀 수 있는 모든 명사의 단위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每个人’을 ‘매개인’으로, ‘几个人’을 ‘몇개 사람’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어에서는 사람을 세는 단위는 ‘명’이지 ‘개’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은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현상으로 보인다.

## 2) 관형적인 구성이 중국어식으로 된 것

관형적 구성도 역시 통사론적인 범주에서 일어나는 표현의 변화라고 하겠다.

### 가) ‘-한’

(7) ㄱ. 상과한 시간 [上课的时间 → 수업 시간]

ㄴ. 무형한 재물 [无形的财物 → 무형의 재물, 보이지 않는 재물]

조선어 ‘행복한 생활’을 중국어로 번역하면 ‘幸福的生活’, ‘상쾌한 아침’은 중국어로 ‘清爽的早晨’이다. 이와 같은 ‘행복하다(幸福)’, ‘상쾌하다(清爽)’ 등의 형용사가 명사 ‘생활’, ‘아침’과 결합할 때 ‘행복한(幸福的)’, ‘상쾌한(清爽的)’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학생들의 작문에서 나타난 ‘상과한 시간’의 ‘상과하다’와 ‘무형한 재물’의 ‘무형하다’는 형용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상과하다’, ‘무형하다’라는 단어조차 없다. ‘상과(수업)’와 ‘무형’은 모두 명사이고 이는 중국어 ‘上课的时间’와 ‘无形的财物’에서의 형용사와 명사를 연결해 주는 조사 ‘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과한’, ‘무형한’의 식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사 ‘的’는 형용사와 명사만 연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사와 명사의 연결도 가능하다. 이는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히’

(8) ㄱ. 무사히 헌신하다 [无私地奉献 → 사심 없이 공헌하다]

ㄴ. ㉞ 부단히 노력하다 [不断地努力 → 끊임없이 노력하다]

이는 위의 ‘-한’을 오용한 것과 비슷하다. 접사 ‘-히’는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이어서 동사를 수식하는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편안히 책을 읽다’는 중국어로 번역하면 ‘安静地看书’이다. 여기서 ‘-히’는 중국어 조사 ‘地’로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중국어에서 ‘형용사+동사’구성에서 형용사 뒤에 ‘地’가 사용되는 것을 적용하여 대응되는 조선어 접미사 ‘-히’를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无私地奉献’을 ‘무사히 헌신하다’로 번역했고 ‘不断地努力’을 ‘부단히 노력하다’로 번역한 문장이 나오는 것이다.

다) 접미사 ‘-적’의 첨가 현상

(9) ㄱ. ㉞ 의사의 직책은 전심전의적으로 인민을 봉사하고 병마와 투쟁하는 것이다.

[全心全意 → 전심전력(全心全力)]

ㄴ. ㉞ (어떤 연애인)은 천생적인 조건과 유리한 지위...

[天生的条件 → 타고난 조건]

접미사 ‘-적’의 첨가 현상을 보면 중국어 ‘全心全意地’와 ‘天生的条件’에 조사 ‘地’와 ‘的’가 사용된 것을 본떠서 접미사 ‘-적’을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술적(技術的)’, ‘문화적(文化的)’과 같은 어휘에서 유추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全心全意地’의 ‘地’이 ‘-적’으로 번역된 것은 중국어에서 조사 ‘地, 的, 得’의 발음이 모두 ‘de’이기 때문에 중국어의 ‘地’와 ‘的’을 헷갈려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라) 접미사 ‘-적’의 생략 현상

(10) ㄱ. ㉞ 리상성적 [理想成绩 → 이상적인 성적]

ㄴ. ㉞ 인격매력 [人格魅力 → 인격적인 매력]

ㄷ. ㉞ 격동의 눈물 [激动的眼泪 → 격동적인 눈물]

접미사 ‘-적’의 생략 현상도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중국어 문장에서 ‘的’이 있으면 접미사 ‘-적’을 쓰고 ‘的’이 없으면 접미사 ‘-적’을 생략 혹은 연결어미 ‘-의’로 쓰이게 되는 현상이다.

이상과 같이 ‘-한’, ‘-히’, ‘-적’은 중국어의 조사 ‘的’ 또는 ‘地’의 용법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의 영향 때문에 중국 조선족 학생들에게는 이 접미사 ‘-적’을 어떤 때는 쓰고 어떤 때는 쓰지 않는 것이 혼란스럽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선어문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강조하여 가르쳐야 하며 이러한 문장의 연습문제도 많이 풀게 해야 한다.

3) 중국어식 구 구성

중국어식 문형과 연어 표현의 침투 현상은 통사론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보다 문체론적인 표현의 침투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구 구성의 문제로 보아 통사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가) 중국어식 문형

(11) 근본…아니다/지 않다 (根本没…/根本不…)

ㄱ. ㉞ 작은 감기라 근본 중시하지도 않았고 약도 먹지 않았다.

因为是小感冒, 根本没重视, 也没吃药。

→ 감기가 약간 들었을 뿐이어서 신경 쓰지도 않았고 약도 먹지 않았다.

ㄴ. ㉞ 게임하거나 드라마 보거나 근본 책을 읽는 시간이 없습니다.

打游戏或者看电视, 根本没有读书的时间。

→ 게임도 하고 드라마도 보느라 책을 읽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12) ‘…지 않다’의 표현을 많이 사용

ㄱ. ㉞ 우리 학생들을 놓고 말하면 행복하지 않는 인소는 적지 않다.

对于我们学生来说, 不幸福的因素不少。

나. ~~아빠~~ 엄마가 매일 이런 집에서 먹고 살며 공작하는데 내가 학교  
에서 공부도 잘 하지 않고...

爸妈每天在这样的房子里生活, 工作, 我却在学校不好好学习...

(11)과 (12)의 표현 방식은 모두 중국어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다. (11)의 표현은 ‘아예...지 않다/ 전혀...(부정문)’의 중국어 문형 ‘根本没.../根本不...’에서 온 것이다. (12)의 표현은 ‘不...(...지 않다)’와 같은 중국어의 간접으로 능력 부정의 표현 ‘잘 못하고’의 표현대신에 사용한 것이다.

## 나) 중국어식 연어 표현

〈표 10〉 중국어식 연어 표현

어구	중국어	의미
감정을 표달하다	表达感情	감정을 표현하다
견결히 반대하다	坚决反对	단호하게 반대하다
활력으로 충만되다	充满活力	활기에 차다
천생적인 조건	天生的条件	타고난 조건
인생 도리	人生道理	인생의 철리
가치를 체현하다	体现价值	가치를 구현하다
자신을 전승하다	战胜自己	자신을 이기다
특장을 발휘하다	发挥特长	장점을 살리다
전화를 치다	打电话	전화를 걸다
쓰레기를 던지다	扔垃圾	쓰레기를 버리다

이러한 격식의 문장들은 중국 조선족들이 중국어의 의미에만 맞추어 쓰려는 데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표현들은 주로 중국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식 표현을 그대로 옮겨오면서 쓰고 있고 문어뿐만 아니라 구어에도 많이 쓰고 있다. 특히 ‘자신을 전승하다(자신을 이기다)’, ‘전화를 치다(전화를 걸다)’, ‘쓰레기를 던지다(쓰레기를 버리다)’ 등과 같은 문장은

조선족들의 의식 속에서 이미 굳어져 버렸다.

최희수(1990)에서는 이러한 문장 구조는 중국어를 배우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므로 중국 연변지역의 조선족학교에서는 중국어를 가르칠 때 이런 예들을 많이 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짧은 글을 짓는 형식으로 중국어식 언어 표현을 쉽게 배우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sup>9)</sup>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집거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중국어를 배울 때 조선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면 중국어든 조선어문이란 모두 제대로 배울 수 없다고 본다. 두 언어가 본질적으로 다른 언어이므로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조선족 학생들에게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어떤 언어를 가르치든 해당 언어의 의미전달방식대로 가르쳐야 하고 그 언어의 어휘 의미와 문법 형식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언어를 가르칠 때 이와 같은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 4) 중국어 명언, 관용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

아래와 같은 명언, 관용어는 학생들이 이런 문장에 대한 지식이 미숙해서 중국어 문장을 직역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3) 一寸光阴一寸金, 寸金难买寸光阴

☞ 일촌광음은 일촌금이다. 그렇지만 촌금은 촌광음을 살 수 없다.

→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황금보다 더 귀중하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4) 温故而知新

☞ 복습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알수 있다.

→ 옛 것을 배우고 익혀 새로운 것을 알다.

(15) 百善孝为先

---

9) 최란화(2010: 47)에서 재인용.

☞ ㉔ 백종의 선에서 효도가 제일 중요하다.

㉕ 백선에서 효가 먼저이다.

㉖ 백가지 선행중 효가 제일 앞선에 두어야한다.

→ 모든 선행 가운데 효도가 가장 으뜸/ 백가지 선 중에서 효를 최우선으로 한다.

(16) 梅花香自苦寒来

☞ 매화꽃이 향기로와지려면 고한(苦寒)에서 벗어내야 합니다.

→ 매화의 고운 향기는 고통과 추위를 겪은 데서 오는 것이다.

(17) 自己动手, 丰衣足食

☞ 자기절로 일을 해서 옷도 있고 음식도 있습니다.

→ 자신이 스스로 하면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할 것이다.

이런 명언과 속어는 모두 중국어에서 온 것이다. 조선어에서도 많은 속담과 관용표현이 있지만 학생들이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중국의 관용표현을 많이 듣고 쓰기 때문에 이미 입에 익은 말이기도 하고 조선어의 속담이나 관용표현에 대해 많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중국어식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梅花香自苦寒来’라는 말이 우리말 속담 ‘고생 끝에 락(낙)이 온다.’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4. 의미론적 측면

중국어는 고립어이기 때문에 조선어는 주로 어휘 의미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중국어와 같은 한자어이지만 의미가 다른 것, 같은 한자어이지만 중국어 단어의 의미가 조선어 단어에 침투된 것 그리고 고유어를 중국어의 의미로 번역하고 그 한자의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 등의 면에서 중국어의 침투 현상이 보인다. 다음은 각 집단의 중국어 침투 현상의 비율표이다.

〈표 11〉 의미론적 현상 비율

	집 거		산 거	
	중3	고3	중3	고3
작문 편수	33	77	63	177
의미론적 현상	1	0	8	27
동자이의(同字異義)				10(37.0%)
같은 한자, 중국어의 의미가 더 많음				5(18.5%)
고유어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다른 의미로 쓰임	1(100.0%)		8(100.0%)	12(44.5%)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산거 지역의 조선족 학생들에게서 의미론적인 중국어 침투 현상이 집거 지역의 조선족 학생들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집거 지역의 중3 학생의 작문과 산거지역 중3 학생의 작문에는 ‘고유어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다른 의미로 쓰임’의 현상만 보이고 집거 지역 고3 학생의 작문에는 의미론적인 중국어 침투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와 달리 산거 지역의 고3 학생의 작문에는 세 가지 의미론적인 현상이 모두 나타난다.

다음은 이 세 가지 의미론적 침투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1) 동자이의(同字異義)

##### (18) 기사(記事)

☞ 내가 기사할때부터 많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사(記事) → 일을 기억하다]

##### (19) 공작(工作)

ㄱ. ☞ 그가(청소 아줌마) 매일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무슨 공작이나 다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작 → 일자리]

ㄴ. ☞ 아빠 엄마가 매일 이런 집에서 먹고 살며 공작하는데 내가 학교에서 공부도 잘 하지 않고… [공작하다 → 일하다]



(18)의 ‘기사(記事)’는 조선어에서 명사로 쓰이고 그 의미는 “[명사] ① 신문, 잡지, 방송, 통신 등에 실린 주로 보도의 내용을 담은 글. ② 사실을 적은 것 또는 적은 사실.”<sup>10)</sup> 두 개가 있다. 중국어 ‘記事’의 의미는 “[명사][동사] ① 사실을 적은 것 또는 적은 사실. ② 역사 과정을 기술하다.”<sup>11)</sup>이다. ‘기사(記事)’의 조선어에서는 명사로만 쓰이지만 중국어에서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인다. 학생이 쓴 글을 보면 ‘기사(記事)’의 의미가 중국어의 의미와 혼동되어 동사로 쓰이어 “겪은 사실이거나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의식 속에 보존하거나 도로 생각해낼 수 있다.”는 뜻으로 오용하게 되었다.

『조선말사전』(1995)에 ‘공작(工作)’은 명사이고 의미는 4가지가 있다.

① 기계나 공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것. ② ((교육)) 일정한 재료를 가지고 간단한 물건을 만드는 기능을 익히며 간단한 도구와 기구를 다루는 방법 같은 것을 배워주는 교과목의 하나. ③ 일정한 임무를 맡고 그 집행을 위하여 활동하는것 또는 그 일. ④ 《어떻게 수단을 써서 마련해내는것 또는 마련하는것》을 달리 이르는 말.

중국어 ‘工作’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인다.

① 체력, 정신 노동을 종사함, 기계, 도구가 사람의 조종을 받아 생산 작용을 발휘한 것을 의미. ② 직업. ③ 업무, 임무.(온라인 한어사전(語漢字典): <http://xh.5156edu.com/html5/z59m40j231136.html> 참조)

(19 ㄱ)에서의 ‘공작’은 “일자리, 직업”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19 ㄴ)에서의 ‘공작하다’는 동사로 쓰여 “일하는 행동이나 행위.”의 의미로 쓰이는

10) 『조선말사전』(1995) 참고, 이하 조선어 의미는 모두 『조선말사전』(1995)를 참고.

11) 온라인 한어사전(漢語字典)<http://xh.5156edu.com/html5/260577.html>  
이하 중국어 의미는 모두 ‘온라인 한어사전’ 참고.

것이다.

## 2) 같은 한자이나 중국어의 의미가 더 많은 경우

### (20) 소질(素質)

☞ 요즘 사람이 참 소질이 없는것 같다. [소질 → 교양]

### (21) 동사(同事)

☞ 동사의 말에 의해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어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사 → 동료]

‘소질(素質)’의 조선어 의미와 중국어 의미를 비교해보면 중국어의 의미 중에 “문화적으로나 품성 면에서 가지고 있는 소양.”이라는 의미가 하나 더 있다는 점이 다르다. 중국어 ‘素質’이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에게 어휘 의미상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조선어 ‘동사(同事)’와 중국어 ‘同事’는 모두 명사로 쓰이지만(중국어를 서 동사로도 쓰임) 중국어에서의 의미가 더 다양하다. ‘동사(同事)’의 『조선말 사전』(1995)에서의 의미는 “두사람이상이 함께 장사거래를 하는 것.”뿐인데 ‘同事’의 중국어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하는 일이 같다. ② 같이 일하다,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③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④ 같은 사물.(온라인 한어자전(漢語字典): “<http://xh.5156edu.com/html5/z99m86j114758.html>” <http://xh.5156edu.com/html5/z99m86j114758.html> 참조)

‘同事’라는 단어가 중국어에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 3) 고유어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다른 의미로 쓰임

#### (22) 던지다

- ㄱ. ㉮ 종이장도 마음대로 던지지 말고 쓰레기통에다 던지고 [던지다 → 버리다]
- ㄴ. ㉮ 그림은 그냥 던져버리고 말았다. [던져버리다 → 내버려 두다, 두다]

단어 ‘던지다’는 『조선말사전』(1995)에서 8개 의미<sup>12)</sup>가 있는데 그 중에 “(손에 든 물건을 다른 곳에 떨어지게) 뿌리다.”라는 의미가 중국어 ‘扔’으로 번역된다. 중국어 ‘扔’의 의미는 “① 던지다. ② (내)버리다, 포기하다.”<sup>13)</sup>이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다’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扔垃圾’가 된다. 따라서, ‘돌을 던지다’, ‘쓰레기를 버리다’라고 할 때는 동사가 모두 ‘扔’으로 번역되는 것이다. 중국어와 조선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중언어 화자들은 조선어 어휘에 중국어의 의미를 나름대로 첨가하여 ‘쓰레기를 던지다’와 같은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국어의 의미 침투로 인해 중국 조선어의 의미가 변화된 어휘들은 대부분은 한자어이고 고유어도 중국어 어휘의 영향을 받아 의미가 변화된 것이 있다. 이와 같은 어휘들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틀린 말이라고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구사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점점 확대되면 북한의 문화어나 남한의

12) 『조선말사전』(1995): 던지다 [동] (타) ① (손에 든 물건을 다른 곳에 떨어지게) 뿌리다. ② (그 무엇을) 높은 곳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다. ③ 도중에서 그만두다. D (하던 문필 활동을) 건어치우다. D (조약이나 약속 같은것을) 지키지 않고 내버리다. ④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목숨이나 재물 같은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거나 바치다. ⑤ (어떤 대상을 향하여) 일정한 표정, 말 또는 행동을 나타내다. ⑥ (빛을) 비치다. [고요한 밤에 보름달만이 빛을 던지고있었다. D (어떤 물체가 자기의 그림자를) 나타내다. ⑦ (어떤 화제나 소문이나 또는 파문 같은것을) 일으키다. ⑧ (그 무엇으로) 남을 찌다.

13) 출처: 온라인 한어사전(語漢字典): <http://xh.5156edu.com/html3/7531.html>

한국어 어휘의 의미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규범화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 민족어의 단어와 문장 구조의 파괴, 다른 언어 문형에 대한 직접적인 모방은 조선어의 표현 수법에 맞지 않는 형식들이다. 물론 한 민족의 문화를 수용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모방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만약에 한도를 넘으면 어휘, 문장 구조, 관형적인 구성이 중국어식 그대로 되어 버릴 수도 있다. 그 필연적인 결과는 문자만 한글로 표기되었을 뿐 그 내용과 형식은 모두 중국어식으로 되어 버릴 것이다. 즉,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어순과 조사를 제외하면 중국어식 문장이 되고 말 것이다.

### III. 중국어 침투의 언어환경적 요인

앞에서 중국 조선족학교의 중·고등학생의 작문에 나타난 중국어침투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런 현상은 언어환경적인 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3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1) 사회적 요인

중국 소수민족 자치지역에는 도로 표지판이나 가게 간판 등 모든 사회 공공시설에 쓰인 언어는 민족어와 중국어로 되어 있다. 연변지역 및 조선족 집거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나 공공기관에 가서 일을 볼 때, 조선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거지역보다 조선어 사용 환경이 더 많이 있다. 따라서 조선족 산거지역보다 집거지역에 있는 조선족 중·고등학생의 조선어 구사능력이 더 높다. 다시 말하면 이런 원인 때문에 II장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집거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이 조선어 사용할 때의 중국어 침투 현상이 산거지역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

다. 집거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우리 민족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 민족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산거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의 언어환경은 주로 중국어에 노출되어 있어서 조선어 교육을 가정과 학교에서만 할 수밖에 없다. 언어 교육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환경과 사회환경이 모두 언어 능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김순희(2016)는 조선족 중학생의 일상생활에서의 이중언어 사용 상황을 조사하였는데 지역에 따라 언어 사용순위가 서로 달리 나타난다고 하였다. 길림성 학생들의 1순위 사용 언어는 조선어(80.99%)로, 흑룡강성 학생들의 조선어 사용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흑룡강성의 1순위 사용 언어는 중국어(73%)로 산거지역 학생들의 사용 언어가 중국어가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김순희(2016)에서 조사한 길림성에 있는 중학교는 연변 집거지역 연결시에 있는 3개 학교뿐이다. 만약에 연변 집거지역 외의 길림성에 있는 다른 산거지역의 조선족 중학교를 조사하였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김순희(2016)에서 조사한 흑룡강성과 요령성에 있는 조선족 학생들의 1순위 사용 언어는 언어환경이 유사한 길림성 연변지역 외의 산거지역에 있는 조선족 학생들의 1순위 사용 언어와 대동소이할 것이다.

중국에서의 조선어는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변화, 발전하고 있다. 그 중에 중국어의 라디오 방송, TV, 뉴스, 잡지, 서적 등 문화 산물이 조선족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해 현 시기에 있어서 사회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어가 조선어에 더 많이 침투되고 있는 상황이다.

## 2) 심리적 요인

2010년 「제6차 중국인구센서스-조선족인구통계분석」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은 중국 총 인구의 0.14%에 해당되는데(肖人夫, 2013: 13), 이는 10년 전보다 10만 명이 줄어든 숫자에 해당된다. 그리고 조선족의 분포지역도 순수 조선족들만 살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 조선족 자치 지역의 경우도 소

수의 농촌만 빼고는 거의 다 조선족과 한족 그리고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다른 소수민족들로 혼성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 조선족의 인구 비율과 사회적인 지위가 한족에 비해서 많이 낮기에 심리적인 위축감이 생기게 된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 조선족들끼리는 조선어를 많이 쓰지만 한족 또는 다른 소수민족과 의사소통 할 때는 중국어를 사용한다. 이는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한족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중국어가 공용어로 되고 있는 중국에서 민족어 사용범위가 중국어보다 좁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심어와 주변어의 차이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감이라고 본다.

조선어가 중국어에 급격히 동화되어가는 언어현상은 조선족 학교에 다니는 한족학생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높은 학년의 남학생들은 또래 집단의 자유대화에서 중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중국어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촌스러운 것으로 느낀다고 대답하였다(김순희, 2014: 387 참조). 이는 II장에서 분석한 내용과 같이 집거지역이든 산거지역이든 학년이 높을수록 중국어 침투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이중언어 사용자의 조선어 사용에서의 심리상의 위축감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조선족들이 중국의 한족들과의 의사소통 가운데서 심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중국어의 뜻을 직접 옮겨 쓰기도 한다. 흔히 조선어와 중국어에서의 의미 구조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무의식중에 중국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쓰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강보유(1990: 341)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 3) 교육적 요인

중국 교육 기관의 관용 용법에 따라 중국 북부 지역의 이중언어 교수 유형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눈다(周庆生, 2014: 124).

- ① 중국어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민족 언어로 수업 하는 경우.

- ② 민족어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중국어로 수업하는 경우.
- ③ 특정한 부분 과목을 중국어와 민족어로 각각 수업하는 경우.

조한(朝漢) 이중언어 교수 모델은 주로 동북삼성에 분포되어 있다. 이 세 가지 교수 유형은 병존하고 있다. ‘① 유형’은 ‘조선어위주형(朝鮮語爲主型)’이라고 부르고 주로 조선족 집거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② 유형’은 ‘중국어위주형(漢語爲主型)’이라고 하고 조선족 산거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③ 유형’은 ‘이중언어형(雙語爲主型)’이라고 하고 이 역시 조선족 산거지역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수 모델이다(周庆生, 2014: 125에서 참조).

현재 교육체제상에서 볼 때 조선족학교의 교육체제는 한족(漢族)학교와 같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각각 3년이다. 다른 점은 조선족학교는 자신의 민족 언어와 공용어인 중국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중국 길림성 통화시교육연수원 민족교육부가 2016년에 통화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이중언어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는 조선어 문, 수학, 음악, 미술 등과 같은 과목의 경우 대체로 민족어로 수업한다. 조선어 문만 민족어로 수업하고 그 외의 과목은 중국어로 또는 조선어와 중국어를 섞어서 같이 수업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중·고등학교는 ‘③ 유형’으로부터 ‘② 유형’으로 수업하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개별 과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과목은 아직도 중국어와 조선어를 섞어서 수업하는 학교가 많이 있다.

중국 조선족 집거지역 외에 산거지역의 이중언어 교수 유형은 원래 ‘조선어위주형’에서 ‘이중언어형’으로 변했고 지금 점점 ‘중국어위주형’으로 넘어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산거지역의 중국어 능력이 점차 높아지는 반면에 조선어 능력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조선어를 사용할 때 중국어 침투 현상이 심해져 조선어의 구사능력이 낮아지기 마련이다.

연변 집거지역은 산거지역에 비하여 조선족이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 있어서 민족어신문, 방송, 잡지, 과외도서, 인터넷 등을 통해 중국어보다 조선어

(한국어)를 더 많이 접촉하고 있다. 반면에 산거지역은 생활환경과 교육 환경에 있어서 조선어보다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상황이므로 조선어의 사용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조선족학교가 민족학교라고 해서 집거지역의 조선족 학교처럼 조선어만 중시하고 중국어를 경시할 수도 없고 중국어가 중국의 공용어라 해서 중국어만 중시하고 민족어 조선어를 경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민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민족어와 중국어를 모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아주 낱요하다고 생각한다.

#### IV. 맺음말

이 연구는 중국 조선족 중·고등학생들의 작문에 나타난 중국어 침투 양상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밝히었다.

중국 조선어의 중국어 침투 현상은 일상생활의 대화, 신문, 잡지, TV, 방송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연구는 이중언어 교육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쓴 작문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다. 학생은 어른에 비하여 어휘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 낱말의 의미범주에 있어서도 어른보다 불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중국이라는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중국어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그 언어가 이질화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어마다 자신의 규범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상의 문제점에 대비하여 규범에 어긋나는 오류 현상을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오류 현상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분석, 연구하여 앞으로 더 좋은 민족 언어의 모습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7. 4. 30. 투고되었으며, 2017. 5. 16. 심사가 시작되어 2017. 6. 7.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보유(1990), 「조선어에 대한 한어의 의미적 침투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7, 340-348, 이중언어학회.
- 강희숙(2003), 「중국 조선족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에 대한 공시적 연구」, 『사회언어학』 11(2), 1-24, 한국사회언어학회.
- 김기중(1990), 「해방이후 한어의 영향 하에 조선어단어의 뜻 변화와 비규범적 뜻 사용」, 『중국조선어문』 49, 4-9.
- 김덕모(1990), 「조선말사용에 나타나고 있는 한어의 영향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7, 349-361, 이중언어학회.
- 김동소 외(1994a), 「중국조선족언어연구: 제1편 중국 조선어 역사 개황」, 『한국전통문화연구』 9, 155-207,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동소 외(1994b), 「중국조선족언어연구: 제2편 중국 조선어에 미친 중국어의 영향」, 『한국전통문화연구』 9, 208-264,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동소 외(1994c), 「중국조선족언어연구: 제3편 중국 조선어의 이질화 현상」, 『한국전통문화연구』 9, 264-293,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병운(2000), 「중국조선족의 언어이질 현상과 그 발전적 추세」, 『語文研究』 33, 27-45, 어문연구학회.
- 김봉모(1998),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식 외래어 분석」, 『한국민족문화』 11, 105-15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김선희(1998), 「중국 연변 조선족언어의 이질화 연구」, 『한국어문학』 11, 3-35, 한국어문연구학회.
- 김순희(2014), 「중국 조선족 초등학교 학생의 언어사용 실태에 기초한 조선어 교육 현황과 대안 연구」, 『새국어교육』 101, 381-399,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순희(2016), 「조선족학교 이중언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글로벌시대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 서전서숙설립 110주년 기념학술회의 2016년 11월 5-7일, 103-119,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
- 맹주억(1990), 「중국의 한중 이중언어상황과 중국어의 영향」, 『시민인문학』 1, 183-215,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서병국(1976), 「한국외래어고(韓國外來語攷)」, 『국어교육연구』 8(1), 9-44, 국어교육학회.
-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1995), 『조선말사전』, 연변인민출판사.
- 정경연(1986), 「해방후 우리 나라의 조선어 규범화가 걸어진 길」, 『조선어연구』 2, 35-69,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최란화(2010), 「중국어 영향에 의한 연변지역 한국어의 변화」,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갑(1990), 「중국에서의 조선어의 변화」, 『이중언어학』 7, 1-9, 이중언어학회.
- 최윤갑(1991), 「중국 조선어에서의 한어 차용어 문제」, 『새국어생활』 4, 13-21, 국립국어연구원.
- 최희수(1990), 「중국 조선족 이중언어역사 개황」, 『이중언어학』 7, 137-144, 이중언어학회.

周庆生(2014),「论我国少数民族双语教学模式转型」,『新疆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35, 122-128, 新疆师范大学.

肖人夫(2013),「城市化进程中朝鲜族人口结构变迁研究」, 中央民族大学 硕士论文.

온라인 한어사전(漢語字典):<http://xh.5156edu.com/html5/260577.html>

## 중국 조선족 중·고등학생들의 조선어 작문에 나타난 중국어 침투 양상 및 원인분석 —중국 길림성과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문영희·조일영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작문에 나타난 중국어의 침투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 조선족 집거지역과 산거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쓴 350편의 조선어 작문을 수집하여 약 337,000자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집거지역 중 3, 고3과 산거지역 중3, 고3, 네 집단으로 나누어 중국어 침투 현상을 음운론적 측면, 형태론적 측면 통사론적 측면 그리고 의미론적 측면을 분석해 보았다. 집거지역의 조선족 학생들이 쓴 작문을 보면 중국어 침투 현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반면에 산거지역의 조선족 학생들의 작문에 나타난 중국어 침투 현상은 집거지역보다 훨씬 많이 나타났다. 조선족이 밀집해 있는 집거지역의 학생보다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는 산거지역의 학생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침투 현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검토는 중국어가 조선어에 침투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핵심어** 중국 조선어 이질화 현상, 중국어 침투 양상, 중국어의 영향, 이중언어 교육, 중국 조선어 교육

# Different Aspects and Causes of Chinese Penetration into Korean-Chines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Writing

—Centered on Jilin Province and Heilongjiang Province

Wen Yingxi · Cho Il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ifferent aspects of Chinese penetration emerged in Korean-Chines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riting. For this study, about 337,000 words from 350 Chinese Korean essays, written by students from both Korean-Chinese converged and diverged region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Study subjects a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middle school seniors and high school seniors in Korean-Chinese converged regions and middle school seniors and high school seniors in diverged regions, and the Chinese penetration phenomenon was analyzed in phonologic, morphologic, syntactic and semantic aspects. While the phenomenon of Chinese penetrating into Korean is not remarkable among Korean-Chinese Students who live in Korean-Chinese converged region, it is remarkable in Korean-Chinese diverged region. Accurate analysis and examination on the penetration phenomenon among students in Korean-Chinese diverged region rather than those in Korean-Chinese converged region can be more useful for examining the process of Chinese Penetration into Korean language.

**KEYWORDS** Chinese Korean Language heterogeneity, Aspects of Chinese penetration, Influence of Chinese, Bilingual education, Chinese Korean Language education